

# 남도문화·현대미술 교두보...예술적 담론 실현의 장 '우뚝'

## 전남도립미술관 2025 운영 방향·전시 계획

강종열·김선두 초대전,남도 수목화 국제전 등 지역 유산 주목  
래리 피트먼·케브라리 박물관 특별전시 등 세계 동향 소개  
아카이브 구축사업, 문화 복지사각지대 없는 예술교육 '다채'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

전남도립미술관이 지역과 국제를 아우르는 문화 예술 허브로의 성장을 목표로 2025년 새해 운영 방향 및 전시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지역 국제 행사와 연계한 전시 기획을 통해 세계 문화예술의 동향을 선도적으로 소개하는 국립미술관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미술관은 지역민들과 동시대 예술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예술적 시도를 장려하며, 지역민들이 예술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창의성을 고취하는 다양한 워크숍과 강연, 전시 연계 활동을 기획해 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작가들과 관람객 간의 활발한 소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술관은 지역사회와 현대예술의 교류를 심화시키는 공간이자 예술적 담론과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 전경

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은유적으로 제시한다.

이올리 미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래리 피트먼' 초대전을 열어 그의 독창적인 회화와 설치 작업을 통해 문화적 상징, 정체성, 사회·정치적 메시지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피트먼은 강렬한 색채와 복잡한 구성을 통해 팬데믹 이후 인류가 직면한 불안과 혼란,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희망과 재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교류 협력전이자 순회전도 열린다.

프랑스 케브라리 박물관 특별전 '오세아니아 - 대양의 예술'을 개최해 18-20세기 태평양 지역 조각과 공예를 포함한 문화유산 170여점을 선보인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협력사업 '2025 필름

앤 비디오' 프로그램 일환인 '창작의 순간 - 예술가의 작업실'도 진행된다. 피카소와 안젤름 키퍼 등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 제작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한다.

미술관은 소장작품을 활용한 기획전과 기획전용관 전시를 개최해 소장품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미술관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소장품과 관련된 아카이브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지역 미술사 연구와 전시 기획에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된다. 5월 어린이날 행사, 10월 어린이 미술 페스티벌을 비롯해 정기적으로 진행중인 어린이 대상 전시 연계 프로그램과 주말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문적으로 기획해 다양한 참여 계층의 필요를 충족한다.

특히, 여름방학 기간에는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전 개최를 통해 미술 작품 감상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사고의 확장을 유도하는 교육적 목적의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성인 대상 교육 아카데미를 정기 프로그램으로 정례화해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한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올해는 전남국립수목비엔날레가 열리는 뜻깊은 해로, 지역 미술의 문화유산을 계승함과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선도하는 예술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시 기획은 물론 미술관 교육, 소장품 관리 및 지역 미술 연구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미술관으로 한층 도약할 수 있는 2025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 ACC재단 프로젝트 앨범 '예언'...첫 해외 수출 쾌거

### 일본 최대 음반유통사 디스크 유니온에 입점

"1970년대 한국 재즈계가 '예언'했던 단 한국적 사운드, 이제 전 세계 50개국에서 함께 들어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5일 "아시아사운드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 5월 발매된 앨범 '예언 (12인치 LP·바이닐)'이 첫 해외 수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예언' 앨범은 최근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음반 유통사인 디스

크 유니온(disk union)에 입점했다.

일본 전역에 58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디스크 유니온'은 재즈 등 장르별 특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일반인은 물론 전 세계 음악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레코드점이다.

ACC재단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아시아사운드 아카이브'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과거 음악을 동시에 음악가들이 현재의 소리로 재해석·



프로젝트 앨범 '예언' 바이닐 이미지

재창조하는 프로젝트다. 첫 앨범 '예언'은 1960-70년대 한국 대중음악과 신민요 및 전통 장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을 담았다. /최명진기자

## 선생님 꿈꾸는 미래 교원 대상 국악연수생 모집

### 국립남도국악원, 8-17일 접수

국립남도국악원이 '선생님'을 꿈꾸는 미래 교원을 대상으로 '2025 동계 미래교원 국악연수' 연수생을 모집한다. '미래교원 국악연수'는 교원을 꿈꾸는 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국악에 대한 이해와 학습법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사업으로, 동계(2월)와 하계(7월)에 걸쳐 연 2회 운영한다.

연수는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4



국립남도국악원 교원직무연수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8월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열흘 간 진행된다.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회원가입 후, '교육·체험'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박 5일간 국립남도국악원(진도)에서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장악과(061-540-4036) 문의. /최명진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원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